1.2 – 1.15

현장실습 시작된 후 세 번째, 네 번째 주 이 두주 동안에 저는 팀장님께서 주신 스케줄에 따라서 두 번째 프로젝트를 WPF로 개발되었습니다.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통해서 제가 WPF와 Entity Framework와 MVVM 개발 mode등 새로운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. 이 두주 안에 다른 일이 없이 SW설게과 개발만 했으니까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설게 단계에는 대부분 시간 혼자로 설게 했으니까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마지막에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

그리고 SW개발팀에 현장실습 한 기간에 팀장님과 팀원들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주셨습니다. 그리고 팀에 일을 하는 분위기가 연구실 분위기와 같고 제 생각 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을 느꼈습니다. 하지만 한국어 더 잘 할 수 있고 팀에 있는 여러분과 자유롭게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고 이 동안에 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좀 자기에 대해서 답답한 것을 느꼈습니다. 이 동안에 학교생활 보다 인생에 대한 것과 개발자에 대한 것과 개발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. 그리고 개발완성하기를 위해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발된 것을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을 이해했습니다.

만약에 다음 여름방학 때에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우리 팀에 현장실습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.

1.2일지

오늘은 회사에 가서 자기 이 동안에 개발된 결과물 대한 것과 이 동안 한 인턴에 대한 것을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꼈습니다.